
기획논문

알타이 구비서사시 「장가르」의 자료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 연구

‘알타이 구비서사시 「장가르」의 자료와 전승 지역의 문화 정체성 연구’라는 기획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집담회 지원의 결과물이다. 알타이 서사시 및 비교신화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필자들은 정기적인 집담회 등을 통하여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여 네 편의 논문을 산출했다.

알타이 지역의 영웅서사시 「장가르」는 「게세르」, 「마나스」와 함께 동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3대 서사시 가운데 하나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러 각편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장가르」는 오늘날 주요 전승 지역인 몽골·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칼미크 등)뿐만 아니라 서구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 의해 국제적인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장가르」 연구는 오래 축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유원수 교수에 의해 최근 칼미크·오이라드 민중의 「장가르」가 세 권으로 번역·주해되면서 연구의 단단한 초석이 놓인 바 있다.

이번 기획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장가르」 형성 초기 알타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부터 이후 오이라드(중국·몽골), 칼미크(러시아·중앙아시아), 신장 위구르(중국), 할하(몽골) 지역으로 분파되

어 전승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여러 이본과 각 지역별 전승 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각 전승 지역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과 그들의 문화정체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알타이 신화공동체의 형성과 재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재조명되고 있는 ‘신화’와 ‘공동체’, ‘민족’(대중)과 ‘정체성’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논문인 조현철의 「유목적 유토피아의 구조와 그 영웅들」에서는 「장가르」의 반복적인 잔치와 전투의 구조를 통해 정주사회와는 다른 유목사회의 불안정한 리더십과 이상국의 모습이 투영된 ‘봄바국’의 구조에 대해 조망한다. 봄바국의 이상은 잔치로 표현되지만 잔치 내에는 놀왕과 사제, 왕과 전사, 전사와 사제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이 내부의 대립을 「장가르」는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괴물 망가스로 상징화된 적들의 공간으로 외화하여 해소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내부와 달리 봄바국의 외부는 장가르와 망가스의 반복적 대결 구조로 구축되어 있으며 전투와 잔치가 미분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장가르와 망가스, 봄바국과 비봄바국의 반복되는 전투는, 전투에서 잔치로 진행되는 정주사회의 서사시와는 다른, 전쟁을 넘어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정주국가의 영웅 서사시와는 다른, 불안정하고 덜 평화적인 유목사회의 서사와 구조를 재현한다고 해석했다.

최원오는 「몽골 영웅서사시 「장가르」에서의 ‘영웅의 코드’와 ‘행위패턴」이라는 논문에서 영웅이 갖춰야 할 정신 및 행동 규범을 뜻하는 ‘영웅의 코드’와 행위자 영웅의 일정한 행위 형태를 영웅의 ‘행위패턴’이라고 규정하고 「장가르」 서사시에서의 두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장가르」속 ‘영웅의 코드’는 명성, 본분, 인정, 경쟁심 등으로 다양하며, 행위패턴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행위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장가르」에 ‘영웅의 코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수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장가르」의 ‘행위패턴’은 영웅들이 군주 장가르가 통치하는 봄바국의 체제 속에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타의적 행위패턴을 보

여주지만, 개별 영웅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 행위패턴도 보여준다고 하였다. 「장가르」의 ‘영웅의 코드’는 국가와 개인에 중첩되어서 작동되며 단일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관계, 수평관계, 순환관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두루 작동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소윤의 「영웅의 눈물과 전쟁의 기억들 —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구비서사시 「장가르」를 중심으로」는 영웅들의 눈물에 주목하였다. 예지력을 지닌 장가르의 눈물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슬퍼하는 눈물, 유토피아 아르 봄바의 주권자인 자신의 위치가 내외부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눈물이라는 것이다. 밍양의 눈물은 고국을 떠나 아르 봄바에서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 외방에 질주해갔을 때의 외로움을 걱정하는 눈물로, 한시적이어야 하는 부족 연맹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는 내부 분열을 암시한다. 한편 흥고르의 눈물은 출정에 앞서 장가르를 들었던 칼미크 오이라드 민중의 눈물이 투영된 것이며 이는 흥고르에 대한 칼미크 오이라드인들의 감정이 이입된 결과로 해석한다. 이들은 모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실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한 영웅’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장가르」의 우울한 영웅들이 흘리는 눈물은 칼미크인이 겪은 상실의 역사의 응축물이라는 것, 이것이 여전히 「장가르」가 불리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논문은 이선아의 「몽골 영웅서사시의 신화정체성과 탈경계적 변이 양상 — 「장가르」, 「게세르칸」 스토리의 전승과 현대적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이다. 이 논문은 「장가르」가 「게세르칸」과 더불어 이합집산이 빈번했던 몽골 유목민의 오랜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견고히 해주는 신화로 작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장가르」와 「게세르」의 시기별, 지역별 변이 양상을 주요 활용 사례와 함께 소개하면서 신화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유목민 특유의 개방성 혹은 유연성을 보여주며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몽골계 민족들의 문화적 연대감을 오늘날까지 강력하게 유지해 주는 비결을 탐색한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재창조된

영웅서사 콘텐츠가 장르·지역적·시대의 경계를 초월하는 ‘탈경계’의 시대에 미래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정체성 정립의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현설